



육계사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국내 최초 휴대폰으로 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닭터·M

요즘은 외출할 때 휴대폰 하나만 챙기면 모든 업무가 가능한 세상이다. 기존의 통화하기, 문자보내기, 메일 수신 확인하기, 사진찍기 등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뉴스, 드라마, 스포츠 경기 등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화관람, 금융거래, 길 안내받기 등 안되는 서비스가 없다. 사방 10cm도 안되는 네모난 물건이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활필수품 이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통해 이제는 양계 수의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부터 네오바이오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종철)에서 실시하고 있는 '닭터·M'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휴대폰으로 만나는 양계전문 수의사, '닭터·M'

양계인을 위한 종합 지식기반 휴대폰 서비스인 '닭터·M'은 네오바이오(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계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솔루션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얻은 결과물로서 육계에서의 최고성과 종계에서의 최소산란율 증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올바른 표준사양 관리를 제시하며, 양계의 특성상 위급한 질병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농장에 질병발생시 지역의 수의사가 방문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이제 '닭터·M' 서비스 기능을 갖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공인된 전문가의 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양계전문 정보, 시세정보, 경쟁력 비교, 질병동향 등 육계사육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닭터-M’ 서비스는 크게 ‘최고농장 만들기’ ‘문제점 해결방안’ ‘뉴스센터’ ‘일격진료 서비스’ ‘육계 입식관리’ ‘자료 서비스’ 등 6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닭터-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오 바이오(www.neobio.net)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월 2만원이다.

1. 최고농장 만들기

‘닭터-M’ 서비스의 첫 번째 메뉴인 ‘최고농장 만들기’에는 ‘올바른 입추수수’ ‘일령과 체중상태’ ‘급수와 급이기’ ‘생산지수 관리’ 등 4개 문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입추수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출하체중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권장 입추수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령과 체중상태’를 선택

했을 경우에는 육종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병아리 일령별 체중상태를 점검 받을 수 있다.

또 ‘급수와 급이기’는 현재 농장에 적절한 급수·급이기 수량을 알려주며, ‘생산지수 관리’ 서비스의 경우 농장의 출하성적에 따른 생산지수로 효율적인 농장운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2. 문제점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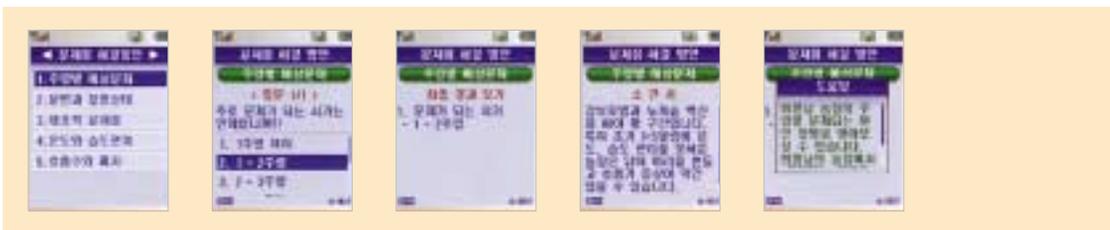
두 번째 메뉴인 ‘문제점 해결방안’ 서비스를 통해서 ‘주령별 예상문제’ ‘분변과 질병상태’ ‘대표적 문제점’ ‘온도와 습도관계’ ‘호흡수와 폐사’ 등 5개 사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주령별 예상문제’ 메뉴는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령에 대해 예상되는 원인 질병들을 신속하게 알아 볼 수 있으며, ‘분변과 질병상태’ 메뉴를 선택하면 닭의 분변을 통해 질병상태 및 닭의 건강상태에 대해 즉석으로 답변을

<그림 1> 최고농장 만들기



<그림 2> 문제점 해결방안



현.장.취.재.Ⅱ.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점’, 계사내 온도와 습도를 통해 닭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온도와 습도관계’, 스톱워치로 호흡수를 체크하여 닭의 1분당 호흡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호흡수와 폐사’ 서비스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바로 수신이 가능하다.

3. 뉴스센터

‘뉴스센터’ 서비스를 통해서도 매일매일의 육계, 산란계, 계란 등 ‘시세정보’와 함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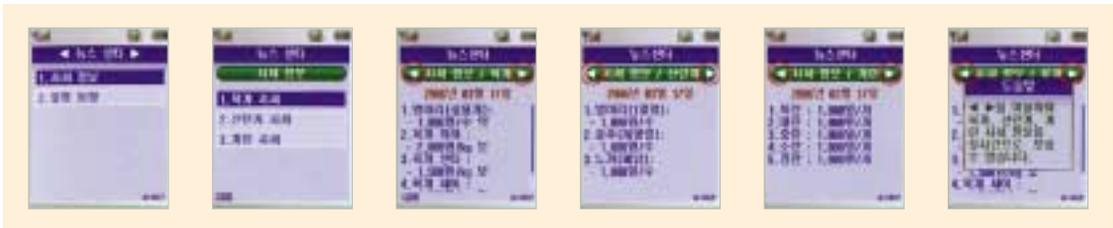
역별 ‘질병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원격진료 서비스

‘원격진료 서비스’는 ‘안면부’ ‘가슴부분’ ‘장기부분’ ‘기타 소견’ 등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뉘며 닭과 농장의 상태에 대해 사용자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예상 질병과 해결방법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1차 질병 확인 → 검진 결과 → 질병 검증 → 질병 검증 소견 → 최종소견 단계를 거친 후에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휴대폰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 뉴스센터



〈그림 4〉 원격진료 서비스



5. 육계 입식관리

‘육계 입식관리’는 현재 농장의 동별 입식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내 입식정보 보기’ ‘입식정보 등록’ ‘입식정보 편집’ 등의 메뉴로 다시 나뉘어져 있다.

‘입식정보 보기’를 선택할 경우 농장의 동별 입추일자와 백신예정일, 출하예정일 등을 비롯 일령별 관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6. 자료 서비스

‘닭터-M’ 서비스 중 맨 마지막 메뉴인 ‘자료 서비스’를 통해서 ‘육계 표준지침’ ‘추천 필드 처방전’ ‘강제환우 요령’ ‘육계 사양 표준’ ‘종계 백신 관리’ 등을 포함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중 ‘육계 표준 지침’의 경우 육종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일령에 따른 사료섭취량, 음수량, 평균 체중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 필드 처방전’ 메뉴를 통해서 질병의 증상이나 각

질병별 효과를 검증한 수의사가 직접 처방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일차별 ‘강제환우 요령’ 및 핵심 일령별 사양관리 중점사항과 백신접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육계 사양 표준’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부터 육계 경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총망라한 ‘닭터-M’ 서비스.

유종철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닭터-M’ 서비스가 모든 양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발전되는 기능에 양계인들의 소망이 담겨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양계 농가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닭터-M’은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가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 ‘닭터-M’ 서비스 상담센터 :
(031)202-0018
-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그림 5〉 육계 입식관리



〈그림 6〉 자료 서비스

